광주경총, 소영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초청 금요조찬포럼

"사람이 경쟁력…리더는 먼저 귀를 열어야"

896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산업 대전환기
지도자 관점·소통 강조…조직 경쟁력·미래 성장 좌우

"투자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신뢰하는 조직은 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난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제1729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소영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AI 자율시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음 30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처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896조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그는 화려한 경영기법보다 사람을 믿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리더십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 전 사령관은 먼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오랫동안 군 공항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기회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년 동안 전투기가 이착륙하며 다져진 활주로 부지는 미세한 진동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생산시설 입지로 오히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환경은 그대로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자 약점이 경쟁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 낮아지지 않는다. 대신 베이스캠프를 높이면 정상까지 가는 길은 훨씬 가까워진다"며 "광주의 출발선 자체가 높아진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소 전 사령관은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의 핵심 요소로 관점·절실함·공간·경청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위기의 크기는 사건이 아니라 리더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떻게 버틸 것인가'보다 '이 위기가 지나간 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조직이 결국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은 늘 저항과 불편함을 동반한다"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찾아온다"고 말했다.

특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리더십도 강조했다.

소 전 사령관은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리더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조직도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청하는 조직문화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소 전 사령관은 "기술과 설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현장의 나쁜 소식이 숨김없이 보고되는 조직문화는 돈으로 만들 수 없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책보다 '더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는 리더가 조직을 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막는 것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결국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며 "심리적으로 안전한 조직이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군 지휘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구례 지역 한 부대장이 위험을 미리 판단해 탄약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이동시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리더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7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9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소영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도 언급했다.

소 전 사령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값비싼 무기가 저가 드론에 무너지는 시대를 보여줬다"며 "반도체와 방위산업 역시 속도와 유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만큼 지역 기업들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96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광주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결국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말을 듣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그는 "기업은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조직은 명령보다 신뢰가 먼저"라며 "광주가 새로운 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만큼 사람을 키우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 전 사령관은 육군 제31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인력획득과장, 육군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전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국전력은 지난 7일 나주 본사 비전홀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한전기술지주 출범…'K-에너지 유니콘' 키운다

기술이전·실증 투자·제품화 전 과정 지원…글로벌 경쟁력 선점

한국전력이 에너지 분야 우수 기술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는 '한전기술지주'를 출범, 기술이전부터 실증·투자·제품화·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K-에너지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지난 7일 나주 본사 비전홀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정진욱 의원,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전력 기자재 대기업과 투자기관, 스타트업 육성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기술지주'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초기 투자비와 긴 투자금 회수 기간 때문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술사업화 투자와 후속투자 연계, 기업 육성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한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술 및 협력사업, 실증 인프라에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과 투자 자본을 결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부터 실증과 투자, 제품화,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전은 이러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선점하고 국내 에너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전기술지주의 설립 경과와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어 직류(DC) 산업 거점 조성과 국산 태양광 인버터 산업 협력, 국내 주요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투자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술·재무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투자 얼라이언스를 활용해 한전기술지주 1호 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전략사업과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기술지주 설립은 기술과 자본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라며 "에너지 보국의 사명 아래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K-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30% 매칭' 조정 검토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한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가와 함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과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만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노동청, 폭염 취약 산업현장 '꼼짝마'

냉방장치·휴게시설 확인…오후 옥외작업 중지 점검

기록적인 폭염과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면서 노동당국이 제조업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장성지역 제조업 산업단지와 광주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차단을 위한 긴급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을 비롯해 산재예방감독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제조업체, 오후에는 건설현장을 각각 찾아 업종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전에는 전남 장성군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를 불시에 방문해 작업장 내 냉방장치 가동 상태와 시원한 음용수 및 보냉장구 지급 여부, 휴게시설 환경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실태를 확인했다. 정밀기계·금속가공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끼임·추락·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도 함께 살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용 안전보건 스티커북을 배포하고, 보호구 지급과 착용 수칙을 담은 계고장을 휴게실에 부착하도록 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고용노동청은 장성 제조업 산업단지와 광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차단을 위한 긴급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